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1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발달 장애인을 직접 부양하는 근로자를 위한 15억 달러 지원 발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채용 전략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추가 보너스와 함께 직접 지원 근로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발달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발달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인력 채용, 인력 확보 인센티브, 백신접종 보너스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구호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일회성 지원금으로 15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지원 근로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팬데믹 기간에 발달 장애인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며 미국 구호 계획의 자금은 근로자들이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너스, 인센티브, 일회용 지원금의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뉴욕주는 2021년 7월 8일에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이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지출 계획 초안](#)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 제출했습니다. CMS는 이 계획에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승인했습니다.

OPWDD의 계획이 승인되면서 DSP 및 가족 관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하여 인력 이니셔티브에게 대부분의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OPWDD는 일회성 ARPA 자금을 인력 개선 및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금을 포함하여 팬데믹 기간에 일한 DSP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Heroes Fund".

- 인력 확보와 근속 보너스는 장기 근무를 격려하고 DSP 인재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추가적인 보너스를 제공하여 인력에 추가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 인력의 장기적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프로젝트 지원금을 통해 수립되고 검증될 장기 채용 및 인력 확보 전략. 자금은 DSP 근로자와 최전선 감독자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는 자격 검증 및 기타 전략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뉴욕주 발달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Kerri E. Neifeld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지원 근로자들은 발달 장애인들이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국의 핵심적 인력이며 팬데믹 기간에도 눈에 띄지 않게 뉴욕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일을 이어왔습니다. 직접 지원 근로자들의 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미국 구호 계획법의 자금을 통해 직접 지원 근로자들에게 투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John W. Manni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여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웰빙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뉴욕주가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는 Kathy Hochul 주지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발달 장애 부문의 전체적 서비스 체계는 직접 지원 근로자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한다면 이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투자는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를 가진 수 많은 뉴욕 주민들과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omas Abinant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지원 근로자 부족 사태는 이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큰 위기이므로 관리자들도 위기감을 가지고 관리하며 프로그램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대규모 지원금으로 인재 채용과 인력 확보에 앞장 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용과 혁신을 위한 뉴욕 협회(New York Alliance for Inclusion and Innovation)의 Michael Seereiter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팬데믹 기간에 DSP가 장애인들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한 것처럼 DSP가 극한의 노동임을 인정하여 직접 지원 근로자들이 업계에 머물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우선적 주력 분야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뉴욕의 장애인들을 최대한 지원해준 DSP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The Arc New York의 CEO인 Erik Geiz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수 노동자들은 뉴욕주의 지적 장애자 및 신체 장애자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의 기반이며 이번

자금은 인재에 대한 투자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공제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크게 반기며, 이 자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준 리더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자금은 자기 주도형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업체가 채용한 가족 관리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지원 근로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에서 채용한 직접 지원 근로자에 관한 토론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